

닛신보 섬유사업의 연결 결산 2003년도에 10억엔 흑자 예상

닛신보는 섬유사업이 2003년도 연결결산에서 영업이익을 10억엔 예상하고 있다. 이 흑자의 전반은 단체(單體)에서, 나머지 반은 자(子)회사에서 올리게 될 것 같다. 섬유사업은 2003년 3월기의 2002년도 연결결산에서 약 7억엔의 영업적자를 냈었다.

섬유사업본부에서는 2003년도 결산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서 ① 2002년도 적자의 주요원인인 재고평가손(在庫評價損) 7억엔이 2003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②인도네시아의 방직 자회사인 “니까와 텍스타일”이 적자에서 상당한 흑자로 돌아설 예상이며 ③일본 내 방직설비를 30만추로 삭감함으로써 풀(full) 조업상태가 되어 코스트가 삭감되고 있다. ④탄성섬유인 폴리우레탄 섬유 “모비론”사업이 흑자로 돌아섰다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도에는 상품별로 보면 원사, 진즈, 셔츠 관련 등이 영업흑자를 보였고, 직물무역, 부직포, 니트, 캐주얼, 침장, “모비론”, 유니폼 관련이 영업적자를 보였었다. 2003년도에는 이들 적자사업 중 유니폼과 “모비론”이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며, 캐주얼도 큰 변동만 없으면 흑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03년도 연결 영업이익에서 가장 크게 공헌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자회사는 브라질의 방직 자회사인 “닛신보 드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니까와 텍스타일”이며, 일본 내의 데님전문 제조회사인 “닛신 데님”도 영업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에 새로 설립한 판매 자회사인 “닛신보 상하이”의 영업이익에의 기여도는 “2003년도는 별로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